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제2 생산거점으로 키워야”

신정훈, 기후부 국감서 ‘국가 전략’ 강조
전남 전력자립률 213% 에너지 여건 충분
반도체산단 용수 하루 106만 확보 추진
기반시설 적기 확충…산업, 일자리 연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의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산업전략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지역 몫을 늘리거나 기업 이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지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호남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여주

는 지표로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했다.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 가운데 영산강권역은 1.7%에 불과한 반면 한강권역은 31.1%, 낙동강권역은 33.7%로 각각 영산강권역의 18배, 20배 수준에 달했다.

신 의원은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의 산업기반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라 할 만큼 빈약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에너지 여건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강점으로 꼽았다.

2024년 발전량과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213.4%에 달하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에 따른 재생에너지 잉여율도 53.1%로 나타났다. 태양광 출력제한 일수 역시 2023년 2일에서 지난해 26일로 늘었다.

신 의원은 “호남에 부족했던 것은 자원이 아니라 이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기반이었다”며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이 지역에서 직접 활용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산업과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산단의 하루 65만 규모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추가 수요와 가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 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북구 솔로몬로파크에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가 열려 시민들이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대비하기 위해 동북댐·보성강댐·주암댐·나주댐·장흥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하루 총 106만t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현재의 물그릇만 놓고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 수요에 맞춰 수원과 관로, 재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와 수질·환경관리, 동북댐 증축에 따른 주민 보상과 소부장 기업 유치, 영산강하국독 용수 활용에 따른 농민 협의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호남에 산

업 하나를 더 얹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지도를 새로 그리는 국가 대도약 프로젝트”라며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첨단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농민과 주민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김정관 장관 “호남 반도체 입지, 기업이 최종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

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해봤는데,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애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첫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 ‘검증대’

시의회, 백승주·윤난실 인사청문회 개최
지역 현안 이해·정책 역량 등 집중 점검
추천 과정·도덕성·사전 업무공유 논란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첫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현안 이해도와 정책 역량, 시민추천 절차의 적절성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설시의회의회는 6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30년 이상 재정·예산 업무를 맡은 경력과 비교해 특별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구3) 의원이 민형배 시장 취임 100일 실행계획 추진 상황을 묻자 백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현명(민주당·진도) 의원의 여수산단 정밀화학 소재와 연계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손남일(민주당·영암2) 의원이 서남권 주력산업을 묻는 과정에서는 농수축산업을 먼저 언급했다가 제차 질문을 받고 조선업을 답변했다. 조선업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없다”며 산업경제부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분야에서도 심철의(민주당·서구4) 의원이 광주의 세입 과다 추계와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을 질의했지만 백 후보자는 “세입 과다 추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민추천 과정도 쟁점이었다. 임용민(민주당·보성1) 의원은 시민배심원 108명 중 21명이 교체된 경위를 지적했다. 백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았으며 추천 과정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숙희(민주당·북구1) 의원은 공모 당시 모집 분야와 실제 균형발전부시장 직무가 달랐던 점을 지적했다. 백 후보자는 “산업·경제와 재정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배우자의 해남 농지 미경작과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주소 이전 문제가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농지에 가보지도 않았고 관리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밝혔으며, 주소 이전 사실도 인정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시민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정책 실행력이 쟁점이 됐다. 임미란(민주당·남구1) 의원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과 인수위 시민주권위원장을 거친 뒤 시민추천 1위로 후보자가 된 과정을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공정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모 분야와 조례상 부시장 직무가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민주권 정책의 구체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공유했던 뒤 시민 판단을 우선하되 법령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취임 6개월 성과로는 소관 분야 조례정비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더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 공식 요청 전 사무공간과 인력, 차량을 지원받고 부서별 현안을 공유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민영(민주당·비례) 의원이 사실상 업무 보고 아니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업무보고가 아닌 티타임”이라며 “정문 준비를 위해 현안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2021~2024년 교통법규 위반 13건과 전남도 정책특별보좌관 활동 당시 보상금과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 차이가 지적됐다. 윤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자기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고, 소득 차이는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26 진도군 보배섬 문화예술제

진도 나 가세,
홍과 끼를 한번 뽐내보세!

2026.10.9.FRI - 10.11.SUN
진도 철마광장 일원

10.9. FRI
13:00-16:00 도지정 민속예술(7종) 공개행사
16:00-17:30 진도다시래기보존회 공개행사
17:30-21:00 진도 실버가요제
18:00-21:00 진도씻김굿보존회 공개행사
13:00-18:00 진도문화예술 체험행사(6종)

10.10. SAT
14:00-15:30 토요민속여행
15:30-16:30 서예퍼포먼스 체험행사
16:30-17:30 3대 아리랑(진도·밀양·정선) 합동공연
17:30-17:50 강강술래한마당잔치
17:50-20:50 원도심 K-민속문화여행
13:00-18:00 진도문화예술 체험행사(6종)

10.11. SUN
14:00-17:00 진도 북 페스티벌
18:00-21:00 진도 보배섬 음악회
13:00-18:00 진도문화예술 체험행사(6종)

주최 **Jindo 진도군**

주관 **진도문화재단 진도지회** **진도문화재단**

참여 진도아리랑음악단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강강술래보존회 · 진도북놀이보존회 · 진도만가보존회 · 남도잡가보존회 · 진도소포경농악보존회 · 조도닷배노래보존회 · 진도흥주보존회 · 진도씻김굿보존회 · 진도다시래기보존회 · 진도국악협회 · 진도문인협회 · 진도미술협회 · 진도사진작가협회 · 진도연예협회 · 진도치기차기보존회 · 진도문화예술연구회 · 진도아리랑보존회 · 한국서예협회 · 진도군글로벌협창단